

<2012년 4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할 일을 놓고 편하게만 살면서 고생된다고 안 하고 살다가는 육도 마음도 영도 병들어서 사망에 처하게 된다.
2. 편하려고 기도 안 하고 사니, 결국 육도 마음도 영도 고통이 온다. 이는 꼭 할 일을 안 했기에 찾아 온 고통이다.
3. 안일주의는 자기를 패망시킨다.
4. 고생돼도 할 일을 다 하고 편안하여라.
5. 할 일 안 하면서 놀고, 쉬고, 눕고, 잠을 자면 결국 고통의 날이 닥쳐온다.
6. 편안하려고 밥을 안 먹고 늘 눕고 자기만 하던 자는 결국 병들어 누워버린다.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7. 편하게만 살다가 가난해졌다.
8. 편하게만 살다가 죽음이 닥쳤다.
9. 편하게만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됐다.
10.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다가 사망길로 갔다.
11. 할 일 안 하고 편한 자세로만 있다가 팔다리가 저리게 됐다.

12. 기도할 때 편한 자세로 기도하다가 결국 잠자게 된다.
13. 할 일을 하면서 고생하고 살아야 후에 편히 산다.
14. 할 일을 안 하고 편한 것은 유혹의 편안함으로 결국 고통의 편안함이 된다.
15. ‘현재의 고생’이 ‘현재의 편안’보다 미래에 편하다.
16. 편하려 눕지 말고 놀지 마라. 이는 점점 더 고통길로 가는 것이다.
17. 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편함이다.
18. 사탄은 인간 우선권의 편안함으로 꾀어 편하게 한 후에 결국 망하게 한다.
19. 왕의 어명을 받고서, 누워 잠자지 마라.
20. 모든 사람들이 그날그날 하나님의 어명을 받고 있다. 어명을 받고 새벽부터 행하여라. 할 일을 다 하고 쉬고 먹고 즐겨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편하게 있느냐.
21. 할 일이 없는 자는 없다. 할 일을 안 하면서 편하게만 지내니까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산다.
22.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하며 영원히 살려거든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23. 깨닫는 것은 아는 것이다. 깨닫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살 길을 깨달으면 산다.

24. 할 일이 없는 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자는 낮과 밤을 투자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라도 하여라.

25. 무엇을 깨달아야겠는가? 첫째, 자기를 향한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리고 실천하여라.

26. 편하려고 앉아서 놀기만 하고 고생된다고 기본 운동도 안 하는 자는 젊은 자도 나이 든 자도 무기력해져서 병든 몸이 된다.

27. 편하려고 매일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자는 결국 몸도, 마음도, 영도 편안하지 않는 자가 된다.

28. 매일 할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자는 결국 몸도, 마음도, 영도 편안한 자가 된다.

29. 원수와 적은 편안한 틈을 타서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30. 벌처럼 나비처럼 매일 나는 삶이다.

31.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할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만 살면 인생 망한다.